

## 숨어 있는 하마들의 첫걸음마를 위해

페미니즘 비평으로 바라본 KBS2 <동백꽃 필 무렵>

문지원

### 공중파에서의 페미니즘 등장

2019년 종영한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은 페미니즘이 안방극장에서의 주류 장르로 도약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한 작품이다. <동백꽃 필 무렵>에서는 미혼모인 주인공 동백의 성장과정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데, 이는 공중파에서도 미혼모를 소재로 한 페미니즘 드라마가 충분히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 KBS라는 공중파 채널에서 페미니즘이라는 소재를 다루었다는 것은 더 이상 페미니즘이 하나의 소재로 한정되는 것이 아닌, 주요 장르로 자리 잡기 시작했음을 말해준다.

<동백꽃 필 무렵>은 대본과 연출에서 크게 호평을 받은 작품이지만, 모든 작품이 완벽할 수는 없듯이 <동백꽃 필 무렵>에도 아쉬운 지

점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동백꽃 필 무렵>이 다루고 있는 페미니즘적인 요소들을 분석하고, 이러한 요소들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부정적 결과들을 도출해 낼 것이다.

## 사실 하마는 풀을 먹는다

<동백꽃 필 무렵>은 미혼모인 동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까멜리아 술집을 운영하며 아들과 단둘이 살아가는 동백은 포근하고 온순한 인상을 하고 있지만 강한 내면의 소유자로, 씩씩하게 역경을 헤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미혼모를 힘없고 자립적이지 못한 존재로만 다뤄 온 기존의 편견을 깨는 설정이다. 동백은 연쇄살인범인 까불이로부터 아들을 지키기 위해 강한 엄마로 성장하고, 자신을 향해 수군거리는 동네 주민들을 향해 자기 목소리를 내는 법을 배워간다.

그러나 미혼모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 설정된 자립적 모습들이 인지도를 얻어 미혼모의 주 캐릭터로 자리 잡게 되면, 역설적이게도 그것이 미혼모에 대한 새로운 프레임이 되어 그들을 공격하게 될 위험성도 존재한다. 악착같이 살아가는 캐릭터 설정이 ‘미혼모는 언제나 씩씩해야 한다’라든가 ‘아이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감내해야 한다’와 같은 압박감을 가져다줄 수 있는 것이다. 많은 드라마가 주인공인 미혼모에 초점을 맞추면서 정작 책임을 회피한 상대, 즉 친부는 화면 밖으로 사라지게 만든다. 그렇게 되면 시청자들은 자연스럽게 친부에 대한 분노를 잊어버리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미혼모가 씩씩하게 이겨내는 모습으로 승화하게 된다. 정작 책임을 져야 할 상대방은 화면 밖에서 삶에 아무런 영향 없이 잘 먹고 잘 살아가지만, 시청자는 미혼모 홀로 고

군분투해 만들어낸 결과를 해피 엔딩이라 일컫고 일종의 합리화를 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동백꽃 필 무렵〉은 이러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한다. 동백이는 생활력이 강하고 씩씩한 엄마지만, 자신이 받아야 할 권리는 똑똑히 챙길 줄 아는 사람이다. 드라마에 흔하게 등장하는 ‘네가 준 돈 더러워서 쓰기 싫다’ 따위의 발언은 하지 않는다. 책임을 다하지 않은 상대방이 홀로 육아를 하는 미혼모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은 정말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다. 상대에게 생활비를 받는 것을 ‘자존심 없고 자립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시선이나, 생활비를 지원해 주었으니 상대는 책임을 다한 것이라 생각하는 모습은 미혼모들을 향해 새로운 공격을 가하는 행동이다. 〈동백꽃 필 무렵〉은 동백이에게 ‘상대방의 지원을 받지 않고 꾀꾀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강요하지 않는다. 악착같이 살아가 되 내가 받아야 하는 몫은 똑똑하게 받아내는 동백이의 모습이 미혼모에게 ‘혼자 이겨내야 한다’는 새로운 프레임을 씌우는 것을 막아준다. 또 동백이는 강인하게 살아가지만, 때로는 용식이에게 “너는 센 척하고 싶지 않다. 그냥 도망가겠다”라고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기도 한다. 이러한 모습은 미혼모로 하여금 언제나 강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부담감을 갖지 않도록 도와주고 힘든 마음을 위로받게 한다. 동백이의 강인하면서도 현실적인 모습은 정글에서 가장 강하지만 풀을 먹고 사는 하마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또한 〈동백꽃 필 무렵〉은 필구의 친아빠인 강종렬을 화면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다. 마지막까지 주변에서 아빠 없이 살아가는 아들을 지켜보며 안타까워하고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방치한다. 이는 책임을 지지 않은 대가를 치르는 것으로, 동백이만의 노력으로 일구어낸 해피 엔딩을 통해 그의 잘못이 어물쩍 잊히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 엄마는 되고, 아빠는 안 돼?

〈동백꽃 필 무렵〉에는 타 페미니즘 관련 작품에도 자주 등장하는 여성연대가 나타난다. ‘옹벤저스’라고 불리는 옹산의 아줌마 부대는 동백이가 까불이로부터 위협을 당할 때 힘을 합쳐 위기에서 구해주는 등 여성들만의 연대를 통해 큰 힘을 발휘한다. 이는 여성들의 연대로 볼 수도 있지만, 엄마들의 연대로 바라볼 수도 있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동백이의 버거움을 공감하는 옹산의 엄마들은 지나가는 필구를 앉혀다가 공짜 밥을 먹이고, 동백이 위협을 당하면 달밤의 집합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 밖에도 까불이로부터 동백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하려는 정숙의 모습과, 홀로 용식을 키워낸 덕순의 모습을 통해 〈동백꽃 필 무렵〉에서는 유독 모성애가 강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동백꽃 필 무렵〉에서는 남편들보다 힘이 센 옹벤저스의 모습이 나타나는 등 가부장적인 모습 또한 찾아보기 어렵고, 유일한 가부장적 요소인 제시카의 아버지 등 자잘한 갈등 요소들을 마지막 화에 크고 작게 응징하고 있기 때문에 페미니즘 관점에서 비교적 비판할 만한 부분이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작품에서 강조하고 있는 모성애가 ‘모성은 부성보다 강하다’라든가, ‘엄마 없는 사람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다’와 같은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작품 내에서는 홀아버지 밑에서 자라난 까불이가 연쇄살인범이 되고, 엄마에게 보호받지 못하는 향미는 희생자가 된다. 아들의 죄를 대신 뒤집어쓰려는 까불이의 아빠를 통해 부성을 강조하지만, 이는 영화 〈마더〉에 나타나는 김혜자의 모성과 유사한 잘못된 부성이며, 까불이는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한다. 같은 한부모가정이지만 엄마 밑에서 자란 인물은 올바르게 성장하고, 아빠 밑에서 자

란 인물은 문제 인물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클리셰는 무의식적으로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는 것’을 여성의 역할로 돌리게 하고, 남성의 육아에는 어딘가 부족함이 있다는 편견을 조장하게 된다.

## 왕자가 없었는데요, 있었습니다

다른 작품들과 비교했을 때 남자 주인공의 영웅적 면모가 확연히 적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까불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이나 동백이가 불 속에 갇혔을 때, 죽을 뻔한 위기 등 결정적인 순간에는 언제나 용식이의 도움이 필요했다는 것, 자립적으로 살고자 하는 동백이의 주변에는 그녀를 지켜주려는 용식이의 울타리가 존재했다는 점이 아쉬운 점으로 작용한다. 또한 자존감 낮은 동백이 용식의 따뜻한 말에 용기를 내고 자립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는 모습은, 과거의 신데렐라 스토리보다는 확연히 약해졌으나 결국은 기존의 구원 서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시청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드라마의 특성상 보다 많은 시청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높은 연령층의 시청자들은 아직 자립적이기만 한 여자 주인공의 모습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백이를 지켜줄 수 있는 건 자신밖에 없다는 용식이의 예상을 뒤엎고, 그녀가 맥주 500cc 잔으로 까불이의 뒤통수를 내려치는 등 스스로를 지켜냈다는 점에서 이 드라마가 전달하고자 했던 자립적인 동백이의 모습은 성공적으로 표현되었다고 생각한다.

## 까불이가 쏘아 올린 페미사이드

페미니스트인 다이애나 리셀은 여성 혐오와 성차별 문화에 기반을 둔 남성의 여성 살해를 '페미사이드'라고 정의한다. <동백꽃 필 무렵>에서는 살인범 까불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이들은 모두 혼자 살거나 주변에 사람이 없어 죽어도 큰 화제가 되지 않는 여성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까불이는 홀로 왓싱숍을 운영하는 여성을 타깃으로 노렸고, 이를 목격한 미혼모 동백이를 위협했으며,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향미를 죽였다. 까불이가 끝내 동백이를 죽이지 못한 이유는 동백이 곁에 갑작스레 생겨난 용식과 마을 주민들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까불이가 저지른 살인은 불특정다수가 아닌, 자신이 쉽게 제압 가능한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철저히 조사한 후에 했다는 점에서 우발적이고 훗김에 저지르는 묻지마살인이나 연쇄살인이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페미사이드'라고 보아야만 한다.

페미사이드를 다루는 작품에서는 살인범이 살인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자주 등장시킨다. 엄마가 없이 성장한 까불이의 성장 배경이나, 그가 받아왔던 동네 여자들의 무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살인범의 잘못에 마땅해 보이는 사정을 부여함으로써 그들의 살인이 어쩔 수 없었던 일인 것처럼 만들어버린다. 그들을 향한 연민을 통해 여성혐오적 폭력을 정당화하려는 행동은 또 다른 폭력을 조장하게 된다.<sup>1</sup>

1 윤일희, “<동백꽃 필 무렵>의 ‘페미사이드’, 무섭고도 무섭다”(2019), <http://brunch.co.kr/@jupra1/5>

## 세상의 모든 동백이들에게

〈동백꽃 필 무렵〉은 최대 시청률이 무려 23.8%에 달하며 그해의 시상식을 휩쓸어간 대작이다.<sup>2</sup> 이 작품으로 인해 미혼모 단체에서 감사 인사를 할 정도로 미혼모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으며,<sup>3</sup> 높은 완성도의 각본과 연출, 배우의 연기력이 더해져 시너지 효과를 낸 공중파 드라마이기 때문에 다른 드라마에 레퍼런스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동백꽃 필 무렵〉은 단순히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을 넘어서 앞으로 페미니즘 장르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념비적인 작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렇게 흥행한 작품에서도 여성에 대한 폭력이 존재하고, 성별에 따른 편견을 조장하는 요소가 등장하며,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 드라마의 구원 서사가 드러난다. 이러한 시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묶여 있는 이데올로기가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여러 가지 아쉬움이 존재하는 작품이었으나,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드라마의 성향 또한 조금씩 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감안했을 때 〈동백꽃 필 무렵〉은 아직 완벽하진 못하지만 앞으로 변화해 갈 드라마들의 길잡이 역할을 해줄 진보적인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동백꽃 필 무렵〉은 세상의 모든 동백이들에게 고개를 들고 말한다. 이를 통해 조금씩 변화해 가는 세상은 숨어 있는 하마들의 첫걸음을 북돋아줄 것이다.

2 11월 21일 마지막 회 시청률 23.8%(닐슨코리아, 2019년 11월 21일 종합 편성 기준).

3 이지영, “인식개선 큰 역할 해줬다 … 미혼모단체들, ‘동백꽃’ 제작진에 감사패”, 《중앙일보》, 2019.12.2, <https://mnews.joins.com/article/23646988>